

# 에두아르 글리상: 카리브 탈식민의 과제와 그 너머

- 『레자르드 강』을 중심으로\* -

심 재 중(상명대학교)

서 론

본 론

1. 이론: 우회, 귀환, 관계
2. 레자르드 강: 안틸-카리브의 과거, 현재, 미래
3. 유적, 유랑, 역사

결 론

## 서 론

카리브 해의 마르티니크 섬 출신의 시인·작가이자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에두아르 글리상 Edouard Glissant은 1928년생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네그리튀드의 선구적 시인인 에메 세제르 Aimé Césaire(1913년생)나 탈식민주의 이론가이자 혁명가였던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1925년생)과 거의 같거나 비슷한 세대에 속하는 마르티니크 출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글

\* 이 논문은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2009.12.12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리상은 70-8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 또는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오늘날의 지구적 현실 속에서, 문화정체성의 주제 특히 이주자들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참조되는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그의 사유와 이론에서 핵심적인 매듭의 역할을 하는 ‘크레올화 créolisation’라든가 ‘관계의 시학 poétique de la Relation’이라는 용어가 어떤 내포를 지니고 있는지 일별해 보기만 해도, 우리는 글리상의 작업에 대한 그러한 주목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예컨대 크레올화를 ‘모든 이질적인 문화들 사이의 충돌, 그 충돌에서 비롯되는 예측 불가능한 생성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리고 관계의 시학을 “이종교배의 시학 la poétique du métissage”<sup>2)</sup>,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 사이의 탈-경계적인 상호작용과 충돌, 교섭과 투쟁’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할 때, 그것들은 소위 세계화 시대의 문화 현상에도 맞춤형에 적용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쓰기 작업에 있어서도 글리상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식 실험과 장르의 경계 넘나들기 등<sup>3)</sup>은 포스트모던한 문학

1) 세제르의 『귀향 노트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는 1939년에, 파농의 『검은 얼굴, 하얀 가면 Peau noire, masques blancs』과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Les damnés de la Terre』은 각각 1952년과 1961년에 출간되었고, 글리상의 첫 소설인 『레자르드 강 La Lézarde』이 출간된 것은 1958년이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e’ 이론과 비평은 1960년대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식민주의 시대의 부산물이면서도 스스로를 탄생시킨 식민-신식민주의적 역사의 맥락 속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회문화적 범주들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계 전망을 모색하는 문학적·이론적·비평적 시도들을 ‘탈식민주의’라는 범주 아래 묶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제르의 탈식민주의를 말할 수 있고, 글리상의 탈식민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E. Glissant, *Le discours antillais*, Gallimard, 1997, p. 430.

적 실천의 구체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로서나 이론가로서나 글리상의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틸-카리브 지역의 탈식민이라는 과제에서 눈을 돌린 적이 없다는 것, 보편성과 세련됨의 외양을 띠고 있는 그의 이론도 궁극적으로는 안틸-카리브적 특수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소설 『레자르드 강』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유는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되 차이들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사유이기보다는, 오늘날의 지구적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일반성과 절대성의 중심 체계’에 저항하면서 그 체계에 균열을 내는 ‘불온한’ 목소리들, 지리멸렬하고 주변적인 목소리들의 ‘잡다함 Divers’에 그 본연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미학적·윤리적 목표로 삼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시도가 서구의 ‘근대’라는 기획을 그 출발에서부터 목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시 문제 삼고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포스트모던’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sup>4)</sup>

---

3) 글리상의 텍스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서로 포개어지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도(群島)’에 비유되기도 한다. 특히 이론적인 글과 소설 장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소설 『전체-세계 Tout-Monde』의 어떤 장(章)들은 마티외라는 인물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마티외는 소설 『레자르드 강』의 중심인물이다. 또한 『전체-세계론 Traité du Tout-Monde』에는 ‘마티외 벨뤼즈의 전체-세계론’이라는 장이 들어 있기도 하다. 첫 번째 소설 『레자르드 강』의 주요 인물들은 이후의 소설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전체-세계』는 자서전, 여행기, 철학적 논증, 소설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진술 등이 뒤섞여 있는 혼합 장르적 성격을 띠고 있다.

4) 오늘날의 세계화 이데올로기 또는 탈근대적 정체성 논의와 관련하여, 카리브 지역의 ‘혼종적 정체성 identité hybride’을 이론화하는 글리상의 작업이 갖는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는 줄고 ‘경이적 리얼리즘’에서 ‘관계의 시학’까지—프랑스어권 카리브의 담론』,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1, 2005

## 본 론

### 1. 이론: 우회, 귀환, 관계

세제르의 시와 파농의 정치적 행동은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  
서, 우회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장  
소로 되돌아오게 해 주었다.

La parole poétique de Césaire, l'acte politique de Fanon  
nous ont menés *quelque part*, autorisant par détour que nous  
revenions au seul lieu où nos problèmes nous guettent.<sup>5)</sup>

20세기 안틸-카리브 Antilles-Caraïbe의 탈식민주의적 정체성 담  
론의 역사에서 글리상의 이름은 제일 먼저 ‘앙티야니테 antilla-  
nité’라는 개념과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혼종과 혼합을 특징으  
로 하는 카리브의 복합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자 했던 ‘앙티야니테’의 개념 자체는 세제르의 네그  
리튀드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제기되었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네그리튀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앙티야니테의 연장선상에서 80년대 후반에 파트릭 샤무아조 P.  
Chamoiseau, 장 베르나베 J. Bernabé, 라파엘 콩피앙 R. Confiant이 공동  
으로 발표한 바 있는 『크레올리테 찬양 *Eloge de la Créolité*』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유럽인도 아프리카인도 아시  
아인도 아닌, 크레올인임을 선언한다.”<sup>6)</sup> 요컨대 안틸-카리브

---

참조.

5) E. Glissant, *op.cit.*, p. 56. 원문의 이탤릭은 저자.

6) “Ni Européens, ni Africains, ne Asiatiques, nous nous proclamons  
Créoles.”, Jean Bernabé et al., *Eloge de la créolité*. Paris, Gallimard, 1990,  
p. 13.

인들은 아프리카인이 아니라는 것, 네그리튀드가 주창한 아프리카적인 가치는 이전의 유럽적인 가치를 바꿔치기한 또 다른 외재성일 뿐이라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지도 않고 단일하지도 않으며 보편적이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역사의 질곡이 우연히 한 장소에 모아 놓은 이질적인 문화들의 혼종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안틸-카리브인들의 입장에서든 세제르의 네그리튀드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내면의 건축물, 자신의 세계, 자기 삶의 순간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sup>7)</sup> 완벽한 소외의 사태 앞에서, 안틸-카리브의 흑인들에게 자신들의 뿌리와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존엄성을 되찾아 준 것이 바로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였기 때문이다. 또한 카리브 지역 흑인들의 분열증적 소외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혁명’이라는 근본적 단절의 실천을 통해 해방을 쟁취하고자 했던 파농의 선구적 역할도 그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틸-카리브 지역의 탈식민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글리상은 네그리튀드나 파농의 정치적 행동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 인용된 글에서 ‘우회’라는 용어으로써 글리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우회를 통해 안틸-카리브인들로 하여금 안틸-카리브의 착잡한 현실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세제르의 『귀향 노트』는 마르티니크보다 아프리카

---

7) “percevoir son architecture intérieure, son monde, les instants de ses jours, ses valeurs propres, avec le regard de l’Autre.”, *Ibid.*, p. 14.

에서 더 많이 읽혔고, 마르티니크인들에게 혁명가 파농은 포르트프랑스의 거리 이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8)</sup>

요컨대 글리상의 입장에서나 후대의 크레올리테 문학론자들의 입장에서나, 그 자체로서의 네그리튀드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보편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글리상에 의하면 네그리튀드의 그런 성격은 안틸-카리브의 흑인노예들이 낯선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일정한 역사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카리브의 흑인노예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정신적·물질적 생존의 테크닉(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다)을 거의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지배자-주인에 대한 모방을 강요당해 왔다.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 맺기의 기술이기도 한 생존의 테크닉이 그저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거나 기원을 향한 회귀 충동으로만 남아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자유롭고 생산적인 자기 창조 대신에 무기력과 절망 속에 빠져들거나 지배자-주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또는 회귀 충동에 떠밀려 이상화되고 절대화된 형태의 기원, 즉 ‘일자-동일자 l'un’에 대한 강박적인 회귀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글리상에 의하면, 역사 속에서 안틸-카리브인들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정되어 왔던 ‘아프리카의 뭉’을 되찾아 ‘흑인성’이라는 보편성의 이름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세제르의 네그리튀드가 다다른 ‘어딘가’가 바로 그 지점이다. 쉽게 말해서, ‘안틸-카리브의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로 회귀하였는데 자신들이 더 이상 아프리카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sup>9)</sup>

8) cf. Edouard Glissant, *op. cit.*, pp. 40-57.

9) 유사한 맥락에서 글리상은 안틸-카리브인들의 프랑스 이주 또한 전형적인 우회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다른 곳에 가서야 자신들의 차이를 각성하기, 그리하여 다시 떠나기·돌아오기’가 바로 글리상이 말하는 ‘우회’

그런 의미에서 안틸-카리브인들에게 네그리튀드는 ‘불가능’이고, 글리상은 네그리튀드에서 주인-지배자에 대한 탈주 노예의 저항과 거부의 에너지만을 읽어낸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는 그 에너지가 불가능을 우회하면서 불가능 자체를 안틸-카리브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 긍정’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회는 다시 귀환을 통해 이곳을 수태시키는 한에서만 유용한 책략이 될 수 있다. 기원의 꿈을 향한, 존재의 불변하는 동일자를 향한 회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려야 했던 착잡한 뒤엎힘의 지점으로의 귀환. 바로 이곳에서 마침내 관계의 구성요소들을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Il faut revenir au lieu. Le Détour n'est ruse profitable que si le Retour le féconde: non pas retour au rêve d'origine, à l'Un immobile de l'Être, mais retour au point d'intrication, dont on s'était détourné par force; c'est là qu'il faut à la fin mettre en oeuvre les composantes de la Relation, ou périr.<sup>10)</sup>

글리상은 ‘이곳에서 관계의 구성요소들을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라는 단호한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안틸-카리브의 미래를 제시한다. 요컨대 글리상에게 있어서 ‘크레올화’나 ‘관계의 시학’은 안틸-카리브인들의 역사적 생존이 걸린 이론적 구상이자 실천이었던 셈이다. ‘이곳의 복잡한 엮힘-혼돈’을 떠안으면서 ‘기원-뿌리의 부재’를 전대미문의 관계들을 향해 스스로를 열어나가는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 그런

---

의 기본 구조이다.

10) *Ibid.*, pp. 56-57.

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안틸-카리브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하는 글리상의 그러한 시도에서, 오늘날의 지구적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전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세계화의 부정적 압력’에서 비롯되는 ‘중심에 의한 주변부의 동일화 현상’ 또는 ‘정체성의 갈등, 해체, 파편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글리상이 말하는 크레올화가 “혼용 fusion이 아니고, 비록 이미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요소들이 존속되기를 요구”<sup>11)</sup>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 2. 레자르드 강: 안틸-카리브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 글리상의 첫 번째 소설인 『레자르드 강』(1958)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레자르드 강』은 1945년을 전후한 시기의 마르티니크의 복합적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앙티야니테의 문학적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후의 글리상의 문학·이론 작업의 기본 열개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레자르드 강』은 마르티니크가 해외도(道)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프랑스의 직접적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정치가 새로운 존엄성의 영역”<sup>12)</sup>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일군의 마르티니크 젊은이들의 역사적 자의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행동을 묘사해 보이고 있는 소설이다. 그리고 그

11) “la créolisation n’est pas une fusion, elle requiert que chaque composante persiste, même alors qu’elle change déjà.”, Robert Chaudenson, *Des îles, des Hommes, des Langues*, L’harmattan, 1992, p. 210.

12) “La politique était le nouveau domaine de la dignité.”, E. Glissant, *La Lézarde*, Gallimard, 1997, p. 19.



행동의 중심에는 마르티니크의 자주적 민중운동을 억압하는 임무를 띠고 관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배신자’ 가랭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놓여 있다. 결국 가랭은 살해되고 마르티니크 최초의 의원 선거에서도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민중의당이 승리를 거두지만, 소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승리가 아니다. 가랭의 죽음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선거의 열기가 가라앉자, 젊은이들은 20년 뒤를 기약하면서 뿔뿔이 각자의 삶의 여정 속으로 흩어진다.

요컨대 문제는 그 젊은이들의 의식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마르티니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소위 앙티아니테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설 『레자르드 강』에서 그러한 전망의 은유적 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자르드 강이다. 그 지세(地勢)를 간략히 도식적으로 묘사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강의 시원에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흔적이자 탈주노예들의 후예인 주술사 룡구예와 산사람 타엘이 있다. 그리고 하구에는 항구적인 유혹이자 역사 현실 속의 모든 구체적 작업에 대한 무화의 위험이기도 한 카리브 해의 열린 공간이 있다. 그렇게 시원과 대양 사이를 쉽 없이 흐르는 레자르드 강의 연안이 바로 마르티니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다.’ 결국 마르티니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산사람 타엘에게 가랭의 살해 임무를 부과하는 마티외의 현재적 임무는 시원의 ‘저항과 거부의 에너지’를 미래의 활력과 가능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설은 산사람 타엘이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여명의 태양빛을 받으며 울퉁불퉁한 산길을 내려오는 타엘의 뒤편에는 한 그루 육중한 화염목 flamboyant이 운명의 깃발처럼 우뚝 서 있다. 그리고 타엘이 자신의 집에

남겨두고 떠나는 두 마리 개가 있다. ‘전설적인’ 옛 이름들이 붙여진 그 개들은 타엘 또는 화자에 의해 ‘저 높고 험준한 산속의 저항과 거부의 열정을 육화’하고 있는 존재들로 묘사되는데, 타엘은 그 개들에 대해 존중과 거부감을 동시에 느껴왔다고 기술된다. 이윽고 산중턱에서 타엘은 자신을 안내해 줄 도시 청년 마티외와 조우한다. 요컨대 미지의 공간이자 새로운 모험의 장소인 “그 도시가 타엘에게는 미래”<sup>13)</sup>였던 것이고, 산속에 고립되어 ‘간혀버린’ 시원의 장소로 상징되는 탈주노예의 저항이, 마티외를 비롯한 들판의 젊은이들에게는, 되찾아 할 과거이자 뿌리였던 것이다. 또는 그 양자 사이의 관계에 부여되는 의미를 소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명석하고 체계적인 그들은 전설을 찾고 있고, 나[타엘]는 질서와 명석성을 찾고 있다...

Ce sont des hommes lucides et méthodiques, ils cherchent la légende; moi je cherche l'ordre et la lucidité...<sup>14)</sup>

마티외는 타엘이 자신의 분신, 밤의 분신, 필수불가결한 분신 같다고, 깊은 어둠 속의 마티외라고 생각한다.

Mathieu pense que Thaël est comme son double nocturne, essentiel: un Mathieu de la nuit profonde;<sup>15)</sup>

그러므로 타엘과 마티외의 ‘만남’은 당대의 마르티니크의 청년들 앞에 주어진 일종의 역사적 필연이자 숙명이라고도

---

13) “cette ville *était* le future pour lui.”, *Ibid.*, p. 17.

14) *Ibid.*, p. 23.

15) *Ibid.*, p. 119.

할 수 있다. 반면에 소설 전체의 서사 안에서 그 청년들의 대척점에 서 있게 되는 가랭이라는 인물은 자신들의 역사·현실의 뿌리에 대한 존중과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냉소적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에 기생하기로 마음먹은 마르티니크인의 표본이다. 또는 니체적인 의미에서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진 자들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는 것”<sup>16)</sup>이 유일한 관심사이고,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할”<sup>17)</sup> 뿐이라는 것이 삶에 대한 근본인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범죄자였던 그는 자신을 떠밀어낸 고향에 대한 원망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는 거꾸로 “강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sup>18)</sup> 강의 수원을 가두고 있는 ‘샘의 집 *Maison de la Source*’<sup>19)</sup>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다. 그리고 강 연안의 땅을 모두 수용하려는 식민통치 정부의 계획에 따라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강을 답사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가랭의 기획은 마르티니크인들의 삶을 그 역사적 기원과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분리·차단하여, 완벽한 소외 상태 속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식민지배 권력의 기획과 닮았다. 젊은이들이 가랭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소설 2부의 골격을 이루는 서사는 함께 강을 내려가는 가랭과 타엘의 여정이다. ‘샘의 집’으로 가랭을 찾아갔다가 문제의 답사 계획을 알게 된 타엘이 살해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 가랭에게 동행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에 걸쳐 하

16) “Sa seule passion est de faire rendre gorge.”, *Ibid.*, p. 101.

17) “Chacun lutte pour son pain.”, *Ibid.*, p. 115.

18) “Pour commander toute la rivière.”, *Ibid.*, p. 97.

19) 소설 속에서 ‘샘의 집’은 레자르드 강의 시원을 은폐하고 있는 일종의 감옥처럼 묘사된다. 육중하고 두꺼운 벽, 내려쳐진 덧창, 어두운 지하실 한쪽에 대리석 타일로 둘러싸인 강의 수원, 그 샘에 발을 담근 채 서 있는 가랭에 대한 묘사는 거의 그로테스크한 느낌까지 준다. cf. *Ibid.*, p. 94.

안을 따라 내려가는 두 사람의 험난한 여정은 ‘대결과 투쟁’으로 규정되는 두 사람의 관계에 은연중 논쟁과 교섭, 대화와 만남의 색채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나무들과 하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로에게 다가간다.

Ainsi peu à peu ils se rapprochent l'un de l'autre, prêtant attention aux arbres et au ciel.<sup>20)</sup>

타엘은 가랭에게 토지수용 계획을 단념하라고 종용하고, 가랭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풋내기들’의 헛된 이상을 조롱하면서 타엘에게 자신의 협력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유혹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논쟁적인 대화를 통해, 레자르드 강이 표상하는 마르티니크의 ‘과거-현재-미래’의 의미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의미는 샘, 강, 바다, 땅, 산, 도시 모두에 결핍되어 있는 어떤 것, 즉 젊은이들이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 사이의 망각되고 은폐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바다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무엇이 끈의 역할을 하고 무엇이 도시를 바다와 땀어줍니까?

- 레자르드 강이지! 가랭이 외친다.

Il y a la mer et il y a la ville, et qu'est-ce qui fait le lien, qu'est-ce qui rattache la ville à la mer?

- La Lézarde! crie Garin.<sup>21)</sup>

---

20) *Ibid.*, p. 113.

21) *Ibid.*, p. 130.

자네 말이 맞아, 가랭이 말한다. 자네 말이 맞아! 함께 바다로 내려가 보고 싶어. 아! 젊은이들...

Tu as raison, dit Garin, tu as raison! Je voudrais qu'on descende à la mer. Ah! jeunesse...<sup>22)</sup>

그래서 뜻밖에도, 강의 하구에 이른 가랭은 타엘에게 배를 타고 해소(海嘯, barre)를 넘어가 보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결국 급류에 휩쓸려 배가 전복되기 직전의 순간에 타엘이 가랭에게 덤벼들지만, 가랭은 타엘의 손이 아니라 배의 전복에 의해 익사하고 만다. 물론 무엇이 그를 하구의 해소(海嘯)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그의 충동적 행동에서는 어떤 숙명의 힘이 느껴진다.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였던 그도 마지막 순간에는 대양의 치명적인 유혹, 즉 ‘무(無)’에 가까운 마르티니크의 현실로부터 벗어나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도약하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작가 글리상은 그 유혹에 마르티니크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필연’ 또는 ‘숙명’이라는 색채를 부여한다.<sup>23)</sup>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글리상이 즐겨 다루는 유적 *exil*과 유랑 *errance*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 3. 유적, 유랑, 역사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타엘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도

---

22) *Ibid.*, p. 131.

23) cf. “La Lézarde. La mer. Une histoire inévitable.”, *Ibid.*, p. 145.

시처녀 발레리와 함께 산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나의 현실, 그건 당신이예요.”<sup>24)</sup>라는 타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발레리와의 결혼은 타엘이 산속의 ‘전설’을 뒤로 하고 강을 따라 바다까지 내려가 본 끝에 마침내 찾아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레리에게 타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원시적인 어둠과 땅의 질척임, 비탈과 계곡의 심연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의 여정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당도하는 순간,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타엘의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이방인인 발레리를 갈기갈기 물어뜯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만다. 그런데 그 개들의 이방인에 대한 맹렬한 공격성에서 우리는 ‘탈주노예 marron’라는 단어의 본뜻(‘야생으로 되돌아간 가축’)을 떠올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에피소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안틸-카리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탈주노예 공동체는 흑인들의 저항과 자존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배타적 고립과 관계의 거부를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요컨대 ‘유적’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sup>25)</sup> 그래서 소설의 중반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파파 롱구에(‘기니 출신의 마지막 흑인’)에 대한 묘사에서는 크나큰 슬픔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감이 묻어난다.

검고 야윈 그의 늙은 몸뚱어리가 구아노 자루들 위에서 뻗뻗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의 말들은 이제 신음과 혈떡

24) “Ma réalité, c’est toi.”, *Ibid.*, p. 243.

25) 발레리의 죽음으로 타엘은 자신의 집이 이제는 “죽음의 집 maison de la mort”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개들을 ‘샘의 집’에 가두어 굶어죽게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타엘에게는 소설의 끝이 미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임이었다(...)

Son vieux corps noir et maigre se raidissait sur les sacs de guano; (...) les mots de son grand-père étaient maintenant des plaintes et des râles, (...)<sup>26)</sup>

늙은 아프리카가 떠난다. 파파 롱구에 만세.

La vieille Afrique s'en va. Vive papa Longoué.<sup>27)</sup>

그렇다면 ‘유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소설을 마르티니크에 강요된 비열과 수치와 궁핍에서 벗어나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노예제와 식민지배와 동화정책에서 비롯된 분열증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읽을 때, 레자르드 강의 지세는 당연히 그 젊은이들에게 ‘산’과 그 반대쪽의 ‘대양’을 가리켜 보이게 될 것이다. 예컨대 대양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소외와 궁핍, 대결과 증오, 원한과 갈등 또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유일한 뿌리’를 향한 회귀가 ‘유적의 위협’이 되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양을 향해 떠나고자 하는 충동도 해소(海嘯)로 상징되는 역사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소(海嘯)의 정체는 아마도 ‘절대적 보편성’이라는 환상일 것이다. 또는 그 환상에서 비롯되는 안틸-카리브인들의 무력감과 열패감일 것이다. 그러니 ‘그 환상을 지워버리고 레자르드 강줄기에 흔적처럼 새겨져 있는 우리의 역사-기억을 우리의 미래의 스승으로 삼자’고 작가는 말하는 듯하다.

---

26) *Ibid.*, pp. 188-189.

27) *Ibid.*, p. 222.

결국 젊은이들은 마르티니크와 자신들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게 된다. “파파 롱구에 더하기 다른 그 무엇. 파파 롱구에도 포괄하는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무엇, 그러나 파파 롱구에에 토대를 둔.”<sup>28)</sup>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소설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펼쳐진 뿌리 같은 바다 거품의 윤곽’이라는 이미지-은유이다. ‘거품’과 ‘뿌리’ 사이의 연속성/비연속성이 보여주는 모호하고도 역설적인 관계 때문이다.

(...) 그녀에게 거품의 윤곽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였다. 펼쳐진 뿌리 같은 거품의 윤곽, 그러나 그 목소리가 공간을 뚫고 그녀에게까지 와 닿는 뿌리 같은.

(...) elle voyait de plus en plus distinct le trait d'écume, comme une racine étalée, mais une racine dont la voix trouait l'espace jusqu'à elle.<sup>29)</sup>

강은 회귀하지 않는다. 지세에 따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다가 마침내 무한한 대양, 즉 관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합류하여 ‘제 몫’의 말을 거품으로 피워 올린다. 그래서 글리상은 ‘관계’를 “말해진 것 *relaté*”<sup>30)</sup>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거품’에 뿌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강은 글리상이 지향하는 아름다움의 탁월한 상징이자 그 조건이기도 하다.

---

28) “Papa Longoué, plus autre chose. Autre chose, qui englobe aussi papa Longoué. Autre chose, mais qui prend appui sur papa Longoué.”, *Ibid.*, p. 222.

29) *Ibid.*, p. 207.

30) E. Glissant, *Poétique de la Relation*, Gallimard, 1990, p. 41.



같은 날, 서로가 함께. 그게 아름다움이다.

L'un et l'autre, le même jour. C'est la beauté.<sup>31)</sup>

그렇게 레자르드 강은 도시가 그저 도시이기를 막아주는 것, 도시로 하여금 밤의 어둠 속에서 뭔가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Et ainsi la Lézarde, c'est ce qui empêche la ville d'être une ville, ce qui donne sa chance d'être quelque chose, au fond de la nuit. C'est la beauté.<sup>32)</sup>

또한 그래서 삼인칭 서술이 주를 이루는 소설인 『레자르드 강』에서 간간이 등장하는 ‘나-화자’의 존재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젊은이들은 인류 역사의 한 고비에서 레자르드 강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화자’에게 책으로 써 달라고 부탁한다. “마치 단어들이 강처럼 흘러 내려가서 마침내 펼쳐지고 넘쳐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sup>33)</sup> 요컨대 ‘아이-화자’는 레자르드 강과 은유적으로 포개어지고, 레자르드 강은 새롭게 씌어져야 할(또는 아직 씌지지 않은) 마르티니크인들의 역사인 동시에 마르티니크의 입인 셈이다. 그래서 ‘나-화자’는 소설의 앞부분에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자라나는 아이’<sup>34)</sup>로 묘사된다.

---

31) E. Glissant, *La Lézarde*, Gallimard, 1997, p. 129.

32) *Ibid.*, p. 131.

33) “Comme si les mots pouvaient être une rivière qui descend et qui à la fin s'étale et déborde.”, *Ibid.*, p. 232.

34) cf. “Et moi, enfant (l'enfant de cette histoire, et qui grandit à chaque mot), (...)”, *Ibid.*, p. 34.

결국 『레자르드 강』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라고 하겠다. ‘흑인 노예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민족’, 다시 말해서 심연 같은 노예선의 어두운 갑판으로부터 미지의 낯선 땅 위에 내던져진 사람들, 그 땅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앎이나 경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세계 non-monde’ 앞에 마주서야 했던 사람들, 그리하여 전대미문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내던져졌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억눌려 온 그들의 ‘신음과 혈떡임’도 다른 목소리들처럼 대양의 뒤척임에 뭔가를 보낼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 결 론

(...) 관계의 시학 속에서, 유랑자는 여행자도 아니고 발견자도 아니며 정복자 또한 아니다. 그는 세계 전체를 인식하려 하지만 그 일을 결코 완수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바로 그 점에 세계의 위협받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를 하나의 투명한 자명성으로 요약해 온, 일반화하는, 보편적인 척령을 유랑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dans la poétique de la Relation, l'errant, qui n'est plus le voyageur ni le découvreur ni le conquérant, cherche à connaître la toalité du monde et sait déjà qu'il ne l'accomplira jamais – et qu'en cela réside la beauté menacée du monde.

L'errant récusé l'édit universel, généralisant, qui résumait le monde en une évidence transparente, (...) <sup>35)</sup>

---

35) E. Glissant, *Poétique de la Relation*, Gallimard, 1990, p. 33.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의 후예인 안틸-카리브인들의 숙명과 자유, 그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깊숙이 잠재해 있다고 여겨지는 ‘회귀 또는 유랑’의 충동에서 출발하여, 글리상은 새로운 정체성의 개념 하나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소위 ‘리좀 rhizome 정체성’ 또는 ‘관계-정체성’이 그것이다.<sup>36)</sup> 근본적으로 유랑자는 뿌리 뽑힌 자이고, 유랑자는 힘이 없다. 그러나 뿌리 뽑힌 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보편적인 칙령’이란, 타자에 대한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지배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서구적 주체의 허구이자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타자의 배제에 기초하는 정체성의 원리, 유일한 ‘뿌리-정체성’의 원리는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점에서, ‘아름답지도’ 않다. 이것이 바로 글리상의 사유와 글쓰기 작업 속에서 정치와 윤리와 미학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이유이다. 요컨대 글리상이 말하는 ‘관계-정체성’은 타자와의 쉽 없는 교환과 접촉을 통해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는 정체성, 다양한 접촉점들을 향해 퍼져나가면서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발견·창조해 나가는 역동적 정체성이다. 그래서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줄기-뿌리들’처럼 서로 얽히고설키는 잡다한 구체성들 사이의 무한한 관계, 그 관계의 역동성을 글리상은 ‘관계의 시학’이라고 부른다.

물론 탈근대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글리상이 “세계화된 바로크 un baroque mondialisé”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의 총체’는 일종의 ‘상상적 가능태’로서의 세계일뿐이다.<sup>37)</sup> 다시 말해서 그가 ‘전체-세

---

36) cf. *Ibid.*, pp. 23-34.

37) cf. *Ibid.*, pp. 91-94.

계 Tout-Monde’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그 ‘가능태로서의 세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고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그 상상적 가능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소위 ‘보편적 칙령’에 대한 저항과 거부의 소명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뿌리 뽑힘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카리브인들의 극단적 소외를 그 ‘아름다움의 세계’에 대한 역설적 소명의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글리상의 사유의 밑바탕에도 당연히 그러한 저항과 거부가 놓여 있다.<sup>38)</sup>

그래서 우리는 글리상의 모든 텍스트에서, 흔적처럼 남아 있는 ‘탈주노예의 어렴풋한 얼굴-윤곽’을 알아볼 수 있다. 극단적인 치욕과 소외를 겪은 땅의 역사로부터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론 하나가 생산된 셈이다. 그러나 그 보편성은 자기가 말하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보편주의’에 반대하고, 개별적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이면에 전체의 조화와 질서에 대한 염려나 은밀한 분리·차별의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있는 ‘다문화주의’에도 반대한다. 글리상은 “오늘날 귀를 멍멍하게 만드는 잡다함 le Divers의 다수성을 서구가 부과하는 투명한 보편성에 대립시키는, 무화된 민족들의 활력”<sup>39)</sup>에서 세계의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서구는 서쪽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장소가

---

38) 글리상이 사용하는 신조어들 중의 하나인 ‘전체-세계 Tout-Monde’는 사실상 마르티니크의 크레올어 표현인 ‘tout moun’(=tout le monde)의 표준 프랑스어식 표기에 가깝다. 말하자면 그 용어 자체가 ‘다중(多衆)-잡다한 타자의 말’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의 외양을 빌어 자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보편적인 언어에 저항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9) “l’élan des peuples néantisés qui opposent aujourd’hui à l’universel de la transparence, imposé par l’Occident, une multiplicité sourde du Divers.”, E. Glissant, *Le discours antillais*, Gallimard, p. 14.

아니라 하나의 기획이다.”<sup>40)</sup> 글리상에 의하면 서구적 보편주의의 기획은 노예선을 타고 카리브 해의 낮은 땅에 이식된 흑인들의 존재 자체에 의해 진즉에 그 정당성을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의 ‘크레올화’나 ‘관계의 시학’은 서구 보편주의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학’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Glissant, Edouard, *La Lézarde*, Paris, Gallimard, 1997(1958).  
 \_\_\_\_\_, *Le discours antillais*, Paris, Gallimard, 1997(1981).  
 \_\_\_\_\_, *Poétique de la relation*, Paris, Gallimard, 1990.  
 Bernabé, Jean et al., *Eloge de la créolité*, Paris, Gallimard, 1990.  
 Chaudenson, Robert, *Des îles, des Hommes, des Langues*, L’harmattan, 1992  
 Césaire, Aimé,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56(1939).  
 Corzani, Jack et al., *Littératures francophones*, tome II, Paris, Belin, 1998.  
 Moura, Jean-Marc, *Littératures francophones et théorie postcoloniale*, Paris, PUF, 1999.  
 고부웅,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

40) “L’Occident n’est pas à l’ouest. Ce n’est pas un lieu, c’est un projet.”, *Ibid.*, p. 14

«Résumé»

## Edouard Glissant: question postcoloniale caribéenne et au-delà

- autour de *La Lézarde* -

SIM Jae-Jung

(Université de Sangmyung)

Edouard Glissant appelle ‘créolisation’ ou ‘poétique de la Relation’ le processus mondial de contacts, de rencontres et de relations; autrement dit, l’interférence, le choc, les harmonies et les disharmonies entre les cultures diverses, qui peuvent engendrer des formes inédites et non prédictibles. Apparemment une telle conception du monde risque d’être interprétée comme une description du monde post-moderne dans le contexte de la mondialisation.

Mais en fait, ce sont des notions qu’il a élaborées à partir d’une analyse, du point de vue postcolonialiste, du réel antillais et caribéen dont les cultures composites, hétérogènes et hybrides sont essentiellement celles qui sont nées d’une expérience limite du ‘non-monde’ dans le gouffre de la traite négrière et de la colonialisation.

Ainsi, comme la lecture de son premier roman *La Lézarde* nous le montre bien, Edouard Glissant nous propose d'imaginer un monde de la créolisation, où les voix et les cris des gens en marge comme les descendants des marrons au Caraïbe entrent en contact multiplié et inattendu, se font entendre en renonçant à une identité-racine.

En somme, par sa poétique de la Relation, il récuse l'Occident comme un projet historique qui a imposé l'édit universel pour opprimer une multiplicité sourde du Divers.

주제어: 에두아르 글리상, 크레올화, 관계의 시학, 『레자르드 강』, 보편성, 잡다함

mots-clés: Edouard Glissant, créolisation, poétique de la relation, *La Lézarde*, édit universel, Divers

투고일: 2010년 10월 20일

심사일: 2010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16일